한국신문과 센세이셔널리즘

유 재 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우리나라 신문의 선정성은 범죄기사의 취급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신문만의 속성이 아니라 범죄기사를 취급하는 모든 나라 신문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신문은 스캔들을 선정주의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범죄기사와 관련된 선정주의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신문의 선정주의는 범죄기사나 신문연재소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문들이 해외토픽을 빙자로 즐겨 싣는 반나체사진 등도 선정주의의 반영일 것이다.

『섹스나 범죄사건 보도에서 때때로 보는 바와 같이 센세이셔널리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저널리즘은 아주 저급하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 F. L. 모트 –

I. 서론

다른 모든 매체와 마찬가지로 신문도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는다. 그 까닭은 여러모로 따져 볼 수 있겠으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신문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또한 사회에서 신문이 수행하는 구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신문이 부정확하고 범죄기사에 지면을 너무 많이 할애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표면만 보도한다는 등의 비판을 한다. 또한 신문은 뉴스를 조작하기도 하며 감상적이고, 비방과 중상을 일삼는다고 꼬집는다.

『신문이란 말입니다! 귀하, 그것들은 가장 악하고 방종하며, 지긋지긋하고 지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신문을 결코 읽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신문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문을 불신하는 극단적인 의견이나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신문에 대한 비판 가운데는 신문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의견도 당연히 포함된다. 사실상 신문은 신문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선정적 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언론의 바른 길을 걷는 훌륭한 신문일지라도 그러한 비판을 받아보지 않은 신문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선정주의는 신문의 피치 못할 한 속성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다. 앞에 적은 신문에 대한 여러 비판도 따지고 들면 신문의 선정주의와 얼마간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쉽게 신문이 선정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한 비판들이 선정주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이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느낀다. 대부분의 경우 선정주의에 대한 비판은 인상비평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만큼 선정주의에 대한비판은 비판하는 사람의 수만큼 많은 주관이 개진되는 것이나 아닌지 모르겠다. 같은 신문기사를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선정주의라고 하느니 또는 그렇지 않다느니 하는 의견이 갈라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신문의 선정주의에 대한 비판 속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의 선정주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개념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선정주의란 무엇인가

선정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를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 보아도 「선정주의」라는 용어자체가 없을 정도다.

선정이라는 단어는 있으나 그것도 「정욕을 북돋우어 일으킴」이라고 간만하게 풀이하고 있을 뿐이다.[1] 아마도 선정주의라는 개념자체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구미에서 도입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않은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선정주의에 대한 개념정의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이는 선정주의를 「사건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과장하고 선정화하여 그 충격도를 인위적으로 높이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2]. 또 웹스터 사전은「센세이셔널하거나 스캔들 감이 되는 기사를 인쇄하거나 제목으로 삼아 흥미를 끌거나, 또는 스캔들 감이 아닌 보통의 뉴스를 센세이셔널하게 왜곡시켜 흥미를 끌게 만드는 것」으로 정의한다[3]. 이 밖에도 여러 신문학자들이 내린 정의가 있으나 웹스터 사전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여기에 인용한 두 가지 정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념 정의들은 그 나름대로 선정주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모두가 고심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념 정의만으로는 선정주의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선정주의가 저널리즘의 연원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존재양식을 규정하는 시대마다의 사회 · 경제적 구조 및 독자들의 취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정주의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첫째, 언론의 관행으로 볼 때 선정주의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파행적 관행이라는 점이다. 선정주의는 잘 팔리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윤리와 책임을 냉혹할 만큼 무시하고, 야하고, 저돌적이며, 감각적이고, 무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독자를 유혹한다. 따라서 매일매일의 사실들을 왜곡하고. 삶의 진실을 값싼 멜로드라마로 각색하며, 죄악과 섹스와 폭력의 고식책을 제공하게 된다. 선정주의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하고도 진지한 뉴스보다 독자들의 흥미를 폭 넓게 끌 수 있는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를 더 선호한다[4]. 인류를 파괴하거나 혹은 불안이 나 유혈사태마저도 빚을 수 있는 추잡한 이야기거리를 찾는 사람, 그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인쇄하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다. 선정주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씨 뿌려지고 가꾸어지는 「악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선정주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다. 선정주의는 ①독자의 감정에 호소해서 흥미를 자극하며, ②사회의 병리현상을 파헤쳐 독자들에게 사회의 부조리를 미워하도록 하고, ③알고 싶어하는 독자를 의식하고 알려야 된다는 기자의 사명감을 다함으로써 인간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만하다는 견해가 있다[5]. 선정주의의 순기능을 지적하는 이와 같은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사회의 병리현상을 크게 노출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는 수단일 수 있다는 뜻에서 순기능적이라는

주장에 수긍할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신문학자들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퓰리처의 경우가 그 같은 본보기로 지적되기도 한다.

선정주의의 순기능적 측면을 지적하는 이와 같은 관점은 선정주의와 진정한 저널리즘을 갈라놓는 중요한 요인을 동기에서 찾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오직 신문을 판매하려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과, 정세의 현명한 판단과 올바른 정책결정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보도대상의 선정과 취급태도 및 지면처리 등은 동기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입장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동기와 그에 따른 보도대상의 선정이나 취급태도 및 지면처리 등이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아울러 동기가 지면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라면 지면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동기를 추론할 수밖에 없음으로 결국 선정주의의 여부는 지면을 가지고 평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기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데는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정주의의 기능에 대한 평가 역시 지면에 나타난 대로의 보도대상의 선정이나 취급태도 및 지면처리에 근거를 두어야 하리라고 여긴다.

셋째, 학자에 따라서는 저널리즘을 ①이야기모형 (Ideal of the Story)과 ②정보모형 (Ideal of Information)의 두 유형으로 크게 나누어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두 모형은 리모리즘의 연원에 뿌리를 둔 것이다.

「이야기 모형」을 저널리즘의 원형이라고 보는 견해는 미드(George Herbert Mead) 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드는 신문에 실린 뉴스를 두 가지 성격의 것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강조하는 뉴스이고, 다른 하나는 재미나 소비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뉴스는 재미나 소비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고 사실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드물다. 그는 뉴스의 일차적 기능은 독자를 위해서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나 지역사회 또는 계급과 그들 자신과의 관계나 혹은 그들 자신의 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족스러운 심미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이고 타당한 신문의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문의 기능은 기자들이 「사실의 수집보다는 「이야기」의 취재를 위해 현장에 나간다는 사실 속에 잘 드러나 있다고 관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저널리즘의 성격은 심미적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오락적 요소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보모형」은 꾸미지 않은 사실(facts) 을 공급하는 데 신문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완숙하게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의 소설형식이라고 했다. 이 때의 정보는 「즉시 증명 가능성」이라는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해서「정보모형」의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며,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자명한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뉴스를 비구조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본 굴드너 (Alvin Gouldner)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 두 가지 모형 가운데서 「정보모형」이 공평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모형」이 「이야기 모형」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저널리즘으로 여겨져 왔다. 또 사회계층으로 볼 때 교육 받은 중산층이 「정보모형」을 선호해 왔고, 노동자계층은 「이야기 모형」을 좋아해 왔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 받은 중산층이 선호해 왔던 「정보모형」의 신문이 제공했던 정보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을까? 마찬가지로 노동자계층을 사로잡아온 「이야기 모형」의 신문이 제공해 왔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것이었을까? 「정보모형」의 신문을 객관성의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정보모형」이「이야기 모형」의 신문보다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인가? 또 「정보모형」의 저널리즘이 「이야기모형」의 그것보다 더 책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모든 판단은 누가하는 것인가? 등이다.[6)]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치 않다. 오늘의 저널리즘에 대한 여러 물음과 새로이 시도되고 있는 저널리즘의 다양한 기법들도 그러한 질문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야기 모형」에 연원을 두고 있는 선정주의도 이러한 문맥 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넷째, 신문의 선정주의는 매스 · 프레스(Mass press), 즉 많은 발행부수를 가진 대중신문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선정주의라는 저널리즘의 새로운 기법이 매스 · 프레스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정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스 · 프레스가 발달하게 된 사회 · 경제적 구조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정주의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른 바 황색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 등장했던 1880 년대는 미국신문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이 시기에 신문의 선정주의가 뉴저널리즘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에서 뿐만 아니라 비로소 미국신문이 매스 · 프레스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어떤 신문학자는 이 시대에 매스 · 프레스가 등장하게 되었던 배경을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신문자체의 새로운 기법의 발전에서 찾고 있다. 즉 라이노타이프와 고속인쇄기 및 천연색 인쇄기술 등이 등장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신문을 적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돋보이는 활자의 주조와 새롭고 과감한 레이 · 아웃, 천연색인쇄, 만화와 크고 많은 사진(그림)의 사용, 자질있는 기자의 증가 등에 힘입어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7)]

그러나 이상과 같은 조건 못지않게 풍요한 요인은 매스 · 프레스가 등장하게 되는 사회 · 경제적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매스 프레스가 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회 · 경제적 구조의 특성으로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들 수 있겠다.

1. 산업의 발달에 따른 경제생활의 변화와 광고비의 증대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시대의 산업발전은 생산성의 증대와 더불어 개인소득의 증가를 초래해 사람들의 소비성향을 고취시켰다. 이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광고비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신문들은 광고수입의 확대를 위한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그 결과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저널리즘의 기법, 즉 선정주의적 기법을 창안해 내어 매스 · 프레스의 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이다.

2. 당시의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한 이민 역시 새로운 리얼리즘의 기법 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에 익숙치 못한 형편이었다. 신문은 바로 이점에 착안하여 보다 읽기 쉬운 영어를 구사하여 기사를 쓰기 시작했으며 언어와 상관없이 신문을 들길 수 있도록 만화와 사진(그림)을 대폭 게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3. 도시화가 신문의 선정주의와 매스 · 프레스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시화는 새로운 사회관계를 형성시키고 생활의 유형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개인들은 유기적 연대로 결속되어질 뿐, 고독한 군중으로 삶을 영위하게 되므로 정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고독의 망각을 위해 신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도시민의 사회적 · 심리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신문은 더욱 더 「이야기 모형」을 지향하게 되었다. 도시화는 또한 필연적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발달시킨다. 수많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빠른 시간 안에 집과 직장을 오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버스나 전철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서 도시화는 「걷는 도시」애서 「타는 도시」오 삶의 공간을 변모시킨다. 도시화에 따른 「타는 도시」로의 변모가 곧 신문의 새로운 기법의 등장을 촉진하게 된다. 출 · 퇴근길의 버스나 전철 속에서 읽을 때의 신문의 활자는 사무실이나 응접실에서 읽을 때의 신문의 활자처럼 작아서는 안되며, 제목도 눈에 잘 띠게 커야 한다. 배 대판의 크고 많은 지면의 신문보다 타블로이드의 적은 폐이지 신문이 더욱 읽기에 간편하다. 심각한 기사보다, 가벼운 읽을 거리가 흥미를 끌 것은 당연한 일이다.

1980 년대의 신문은 전보다 '리드'를 발전시켜왔으나 이제는 독자가 빨리, 그리고 쉽게 뉴스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도시화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상응하여 신문은 페이지수를 줄이고 제목을 키우게 되었으며 만화와 사진을 많이 쓰고 읽기 쉬운 기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즉 신문은 선정주의의 기법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매스 · 프레스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8)]

다섯째 선정주의는 기법상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구자들은 선정주의 저널리즘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1)큰 제목 (2)사진(그림)의 과대한 사용 (3)많은 만화(원색)의 게재 (4)선정적이며 고의적으로 조작된 기사 (5)천박한 내용(섹스와 폭력과 영웅숭배주의의 강조) (6)서민대중의 편을 드는 듯한 허식적인 동정적 편집 (7)휴먼 인터레스트 기사의 강조 등이다.

이렇게 볼 때 내용과 형식 양면에 걸쳐 다같이 선정적일 때만 선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신문의 선정주의를 판단할 때는 보통 형식이나 내용의 어느 한편에서 그 같은 기법이 사용되고 있을 때도 그렇다고 평가하는 것이 상례이다. 1880 년대의 미국의 황색저널리즘은 내용보다는 형식의 선정성을 더 강조했었다. 최근의 탐색 저널리즘(Investigative Journalism)을 둘러싼 선정주의논쟁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문제 삼는 것 같다.

영국의 왕립 언론평의회는 선정적 보도를 (1)특정한 의미를 극도로 강조하며 (2)독자의 흥미를 선동하고 (3)사건을 실제보다 흥미롭고 중대한 것처럼 윤색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같은 정의도 얼핏 보면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 같으나 이 세가지 기준은 형식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정주의에 해한 몇 가지 정의와 신정주의 저널리즘의 생성배경 및 특징적성격을 토대로 선정주의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려본다면 다음과 같다.

『매스 · 프레스와 더불어 등장한 저널리즘의 파행적 수법으로서 보도대상의 선정과 기사작성 및 지면구성에 있어 오로지 그 기준을 독자의 흥미를 부추기는 데 두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저널리즘의 한 유형이다』

이 같은 정의는 사전적 정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경험적 연구를 위해서는 따로이 조작적 정의를 내려야 마땅하다.

III. 한국신문의 선정주의

1979 년 1 월 10 일부터 2 월 10 일 사이에 한국신문연구소가 조사한 「70 년대 한국언론인의 의식구조」에 따르면 신문기자 자신들이 우리나라 신문은 선정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9] 즉 <표 1>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94%가 한국신문에 선정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장급 이상에서는 약 95%가, 차장급에서는 약 93%, 그리고 평가자의 약 94%가 그렇다고 긍정하고 있다.[10]

(책보기 43) <표 1> 신문 기자들이 평가한 한국신문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설문에 응답한 기자 자신들이 선정주의를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아마도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의 응답을 과학적 자료로 삼기는 어려울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인상비평에 그친 한이 있더라도 신문기자 자신들이 한국신문은 다소라도 선정주의적이라는 데 거의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신문이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나머지 선정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사회의 비판은 신문인 스스로에 의해 수긍된 셈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신문은 신문 스스로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신문의 선정주의를 통제하고 있다. 즉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실천요강」을 보면 선정주의를 통제하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독립성 제 3 항; 「기사의 작성 및 취사정리에 있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유해한 것을 오직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대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특히 외설 기타 부도덕의 과대한 보도로써 미풍양속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

타인의 명예와 자유, 제 2 항;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 또는 평론해서는 안 된다. 공공의 이익과 대중의 이익과 대중의 호기심은 엄격히 구별 되야 한다.」

필자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60 년대와 70 년대동안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심의한 이 두 조항의 저촉 건수는 독립성 제 3 항의 경우 3 건, 타인의 명예와 자유, 제 2 항은 152 건으로 나타났다.[11] 또한 선정적 보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명예훼손의 결정이유 가운데 허위보도 건수도 48 건, 과장보도는 34 건, 왜곡보도 14 건, 저열한 표현 18 건 등으로 분석되었다.[12] 이와 같은 분석자료가 곧 한국신문의 선정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못 된다. 다만 선정주의를 통제하는 조항의 저촉건수와 선정주의적 보도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실천요강 저촉 건수를 통해 한국신문의 선정주의의 성격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따져볼 때 우리나라 신문의 선정성은 범죄기사의 취급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신문만의 속성이 아니라 범죄기사를 취급하는 모든 나라 신문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몇 나라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신문은 스캔들을 선정주의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특히 범죄기사와 관련된 선정주의가 두드러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신문이 범죄기사 내지 사건기사를 선정주의적으로 다룬다는 지적은 특히 70 년대 후반에서부터 두드러졌다. 여대생 박상은 양의 피살사건, 주교사의 윤상군 살해사건, 윤보살 피살사건, 을지병원 사건 및 최근의 이른바 대도조세형사건의 보도에서 특히 그러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다른 신문의 선정주의를 비판한 사례를 한가지만 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13]

『대도사건에서의 센세이셔널리즘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폭로하는 데 그 기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기사취급이나 편집의 수법은 사회면이 안고 있는 재래식 문제점을 이번에도 그대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그와 같은 예가 주인공의 처와 주변인물에 대한 사생활 및 개인의 권리침해 · 초상권침해 등 사회면의 문제의 목록이 이번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과거와 최근의 사생활을 너무나 들추는 것도 아무리 그가 절도범일 망정 좋지 않은 신문의 기사취급 방식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신문의 절도범의 행적을 마치도 「의적시」 또는 「미화」하는 것과 같은 도덕적 · 윤리적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가치기준을 전도 시키지나 않았는지 염려되기도 한다. 』

사건기사나 범죄기사 이외에 신문윤리 실천요강에서 통제하고 있는 선정주의 조항을 가장 많이 위배하고 있는 것이 신문연재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문연재소설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독립성 제 2 항에서 규제하고 있는 「외설」과 「부도덕의 과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심의, 규제되며, 윤리위원회는 1966 년 7 월부터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심의 규정을 제정하고 심의를 시작했다. 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연재소설을 자율 심의한 이래로 규정위반이라고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14] 즉 ①근친상간 등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패륜적 내용 ②집단혼음, 윤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 · 육체적으로 해치는 내용 ③미혼 · 기혼남녀의 간통 등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는 내용 ④강간, 강도행위장면의 구체적 묘사로 동종범죄를 유발케 할 위험성이 있는 내용 ⑤잔혹한 살상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 ⑤변태적인 성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 ⑦성행위 장면의 선정적 · 외설적 묘사 ⑧음란, 저속한 음담패설 등이다. 이상의 지적사항

가운데서 대부분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그것을 반드시 선정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반도덕적 행위를 묘사함에 있어 선정적 수일을 동원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문연재소설의 선정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의 지적사항 가운데서 성행위장면의 선정적, 외설적 묘사와 음란, 저속한 음담패설은 명백한 선정주의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밖에도 근친상간이나 혼음, 윤간, 강간, 간통 등을 다루는 한 성행위의 구체적 묘사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므로 그 같은 기적사항은 일단 선정주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사실상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한 예를 이곳에 옮기고 싶어도 참아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추잡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만 밝힌다.
윤리위원회가 1966 년 7 월 처음 신문소설을 심의한 이래, 과거 16 년 동안(1981 년 4 월 현재) 무려 167 건(주간지 21 건 포함)에 246 개의 신문소설이 규제되었다고 한다.[15)]

신문연재소설의 선정주의는 문학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의 시비를 떠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신문연재소설이 없는 서구의 경우와는 달리 죄악과 섹스와 폭력의 고식책을 제공하는 한국신문의 연재소설은 사건기사나 범죄기사의 선정주의를 무색케 하는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대중지에 비해 휴먼 인터레스트 기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 신문의 경우 신문연재소설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삶의 진실을 값싼 멜러 드라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선정적인 신문연재소설을 청소년들도 읽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진다.

한국신문의 선정주의는 범죄기사나 신문연재소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문들이 해외토픽을 빙자로 즐겨 싣는 반나체 사진 등도 선정주의의 반영일 것이다. 심지어 문화재 발굴기사에서도 과장에 의한 선정주의가 드러난다 「국보급」이니, 「획기적 자료」니, 「첫 발견」, 또는 「국내유일」 등의 수식어로 단장되는 문화재 발굴기사에서 그러한 경우도 자주 본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문화재 전문기자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잘 엿볼 수 있다.[16)]

『신문기사대로라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국보급」과 「최초로 발견된」문화재들이 쌓여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화재의 과장보도는 취재기자의 의도적인 허풍이 1 차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코멘트의 경우에도 본인의 허가 없이 이름을 도용하는 수가 있다. 선생이 이 기사에 대한 이러이러한 코멘트를 했느냐고 물으면 금시초문이며 전화를 받은 일조차 없다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다』

이 말에서 지적된 허위보도와 조작은 전문분야의 기사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보도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어느 사건기자의 글에서 그와 같은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글은 1979 년의 효주양 납치사건보도와 관련된 것이다.[17)]

『첫번 유괴됐다 돌아왔을 때 일부 신문에서 효주양의 수기가 툭툭 튀어나오더니 이번에도 공포와 경악 속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수기가 몇 개 신문에 보도된 점이다. A 신문은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B 신문에서는 원고지 수십 장의 수기가 나왔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외에도 한국신문의 선정주의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한국신문의 선정주의의 배경과 조건을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된다.

III. 맺는 말

한국신문의 선정주의가 어떤 배경과 조건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지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가설을 제시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한국신문의 선정주의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사회 · 경제적 구조와 관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70 년대에 신문의 선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시기에서보다도 더 고조되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시기는 정부의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에 의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내외에 달했던 때로 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라 광고비가 급증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에 자극받아 신문의 상업주의 역시 제 자리를 잡아간다. 이 시기의 신문기업은 광고비 수입을 증대 시키기 위해, 밖으로는 상업 텔레비전과, 안으로는 신문기업 상호간에 격심한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신문들은 자연히 발행부수 확장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수단으로 선정주의가 다른 어느 시기에서 보다 강조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둘째, 이 시기는 문화적 갈등과 규범체제의 아노미 현상마저 극심했던 때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사회적 문맥 속에서 선정주의를 등에 업은 매스 · 프레스가 성장하게 된다. 사회의 규범체계가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윤리 강령이 제대로 지켜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이런 뜻에서 이 시기의 한국신문의 선정주의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다.

셋째, 70 년대의 급격한 도시화 현상 또한 한국신문의 선정주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880 년대 미국신문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도시화는

신문발행부수의 증가와 선정주의화에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같은 현상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것은 일간신문에서 보다는 주간지에서였다고 하겠다.

넷째, 이 시기의 언론에 대한 극도의 제한 역시 선정주의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여긴다. 결국 정치권력에 의한 정상적인 언론활동에 대한 제약은 신문으로 하여금 상업주의를 추구하도록 작용하게 되고, 그 결과 선정주의가 정통적인 저널리즘의 관행과 대치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서 충분히 뒷받침된다.[18)]

『신문소설이 가장 크게 문제된 것은 1970 년대의 유신체제하에 긴급조치 9 호 등으로 신문의 보도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신문경영정책상 그 오락기능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를 통계적으로 보면, 1970 년의 6 건, 1971 년의 16 건, 1972 년의 13 건, 1973 년의 10 건 둥 초기엔 비교적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74 년도의 14 건에 15 개사를 비롯하여, 1975 년은 17 건에 19 개사, 1976 년은 14 건에 20 개사, 1977 년은 16 건에 33 개사, 1978 년은 15 건에 33 개사로 증가 일로에 있었다. 그런데 10.26 박 대통령 피격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1979 년에는 15 건에 24 개사로 주춤하고, 1980 년도에는 10 건에 15 개사로 감소되었다:』

다섯째, 신문의 선정주의는 언론인의 직업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 즉 치열한 경쟁은 자칫 선정주의에 흐르기 쉬우며, 특종을 하려는 경쟁 또한 잘못하면 관점의 균형을 잃게 한다. 한국신문의 선정주의도 이와 같은 기자들의 직업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신문의 선정주의와 관련 있는 여러 배경과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우리나라 신문의 선정주의는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상대적인 의미에서 바른 선진국의 경우에 비해 심한 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까닭은 전통적으로 고급신문을 지향해 온 언론인과 신문기업의 양식때문이라고 믿는다. 상업주의를 표방하고 창간된 신문조차도 고급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성격을 잘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주>

1)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p.19 와 신기철, 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2) 이상회, "사건기사와 뉴스가치", 신문과 방송, 제 149 호, (1983. 5), p.16.

3)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Vol.III., G & C Merriam Co., 1976.

4) Emery, Edwin, The Press and America, Englewood Cliffs, N.S. :Prentice Hall, 1962, pp.145 ?146.

5) 김동철, "「과부족현상」의 사건보도", 신문과 방송, 제 151 호, (1983. 7), p. 62.

6) Schudson, Michael, Discovering the News, New York: Basic Book, Inc., 1973. pp. 88-91.

7) Emery, or. cit, p. 415.

8) Schudson, op. cit., pp. 91-106.

9) 한국신문연구소, "70 년대 한국언론인의 의식구조 조사분석", 신문과 방송, 제 100 호, (1979. 3),pp. 30-31.

10) Ibid, p. 30.

11) 유재천, "한국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 언론중재, (1982. 봄 호), p.26.

12) 같은 글, p.27.

13) 안광식, "사회면의 지면제작경향", 신문과 방송, 제 149 호(1983. 5), pp.22-23.

14) 엄기형, 신문윤리론, 서울 일지사, 1982, p. 381.

15) 같은 책 p. 381.

16) 반영환, "경쟁 내세운 추측, 과장 많다. ", 신문과 방송, 제 78 호(1975. 5), pp. 27-29.

17) 안기호, "지나친 취재경쟁 과연 옳았던가", 신문과 방송, 제 102 호(1979. 5) p.30.

18) 엄기형, 같은 책, pp. 381-382.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졸, 미네소타대학교대학원(매스컴 전공)

- 저술 「한국의 언론」 (1968. 공저) , 「현대사회와 대중문화」(1975. 공저)「인류의 미래상」 (역서)

- 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